

201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의 생활

메시지 6

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생활

성경: 롬 14:17,

마 5:6, 9, 20, 6:33, 시 89:14, 골 3:15, 행 13:52

I. 하나님의 왕국은 의이다 — 롬 14:17.

- A. 의는 옳고 합당한 것을 의미한다.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들에게 올바르게 합당해야 한다 — 마 5:6, 6:33.
- B.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달려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분이 의가 되심에 달려 있다 — 요일 1:7, 9.
- C. 가장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다. 우리 속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— 빌 1:21 상, 갈 2:20.
- D. 신약에 따르면 의에는 네 가지 방향이 있다.
 - 1.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서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하여 올바른 것이다 — 마 5:20.
 - 2. 의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— 고후 3:9, 18, 고전 15:45 하.
 - a. 그 영은 우리 속에서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형상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— 엡 4:24, 골 3:10.
 - b. 우리 안으로 새겨진 신성한 본질은 특별한 표현을 갖고 있을 것이며 이 표현이 의이다 — 고후 3:3, 9, 마 5:20.
 - c. 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을 상징한다 — 엡 4:24, 골 3:10.
 - 3. 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문제이다 — 마 6:33.
 - a. 하나님의 보좌는 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 — 시 89:14, 97:2.
 - b.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행정과 통치와 관련된다 — 사 32:1.
 - c. 의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오며 그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— 롬 8:4, 29, 14:17.
 - 4. 의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에 속한 문제이다 — 고전 15:34, 고후 5:21.
 - a. 우리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은 내적인 존재가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은 것, 내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것이다 — 계 21:11, 18 하, 21 하, 22:1.
 - b. 이런 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한 것이다 — 고후 5:21.

II. 하나님의 왕국은 화평이다 — 롬 14:17.

- A. 우리의 아버지는 화평의 본성이 있는 화평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화평의 하나님이다 — 롬 15:33, 16:20, 마 5:9, 히 12:14, 약 3:18, 살후 3:16 상.

- B.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, 화평은 그리스도이며, 화평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, 화평은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으로서 전파되었고 화평은 몸의 화평이며 몸 안에 있다 — 엡 2:14-15, 17, 6:23, 갈 6:16, 골 1:20, 3:15.
 - 1. 몸 안에서 사는 것과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몸의 화평 안에서 사는 것이다.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화평의 때는 따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— 엡 4:3.
 - 2.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, 우리는 할 수 있는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— 롬 12:18, 히 12:14.
- C.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도록 해야 한다 — 골 3:15.
 - 1. 판정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— 사 9:6-7.
 - 2.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반드시 모든 것 안에서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올라야 한다 — 히 7:2.
 - 3. 몸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— 빌 4:7, 9.
 - 4.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체들을 향하여 화평의 상태 안에 있어야 한다.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— 골 3:15.

III.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다 — 롬 14:17.

- A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 — 느 8:10, 엡 3:11.
- B.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사는 것을 요구한다 — 벧전 1:8, 마 5:11-12, 행 5:41, 13:52, 빌 2:17-18.
 - 1.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패배했고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고 우리가 신성한 제한을 벗어버린 것을 가리킨다. 그 결과 우리의 영은 무게에 눌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다 — 빌 4:4, 살전 5:16.
 - 2. 우리가 의와 화평의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살 것이다 — 롬 14:17.
- C. 삼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사도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— 롬 15:13, 요 15:11, 17:13, 행 13:52, 갈 5:22, 고후 1:24, 빌 1:25, 2:17-18.
- D.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— 렘 15:16.
- E.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달콤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— 요 1:14, 16-17, 고후 13:14.
 - 1.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첫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음식으로 제시하셨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— 창 2:7, 9, 시 16:11, 렘 15:16.
 - 2.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— 느 8:10.
 - 3.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일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흡수하고 그분을 누렸는가이다 — 요 15:4-5, 골 2:6-7.
 - 4.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— 히 12:1-2.
 - 5. 우리는 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” 것이다 — 벧전 1:8.